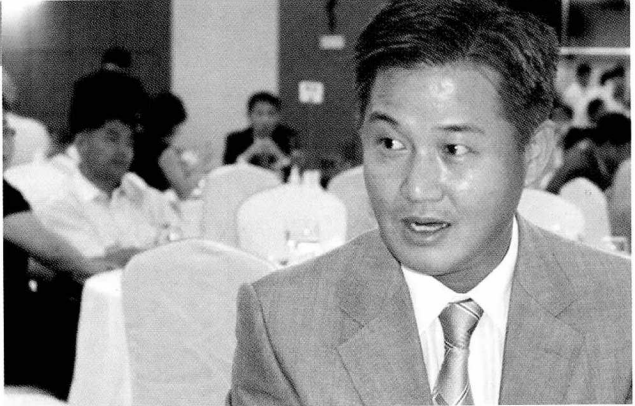


“수출 강화 … 2010년 매출 1조 목표” 8월1일 귀뚜라미그룹 ‘제2의 창업일’

김규원 귀뚜라미그룹 총괄사장



귀뚜라미그룹은 8월1일을 ‘제2의 창업일’로 변경하면서 김규원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를 그룹총괄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규원 총괄사장은 귀뚜라미보일러를 비롯해 귀뚜라미범양냉방, 귀뚜라미홈시스 등을 총괄하게 돼 냉난방복합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냉난방 복합기업의 의미는
해외에 나가보면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이 센추리와 범양냉방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초로 냉난방 복합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귀뚜라미그룹은 아산공장을 냉난방 복합라인으로 건설, 가동률을 높여 원가를 절감해 보일러와 에어컨의 가격거품을 빼고 있다.

△홈시스마트 100호점을 오픈했는데
귀뚜라미의 홈시스마트는 주거 공간 설비의 신개념 유통점으로 보일러, 에어컨, 가스오븐, 가구, 벽지 등 집에 관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견적에서부터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100호점 오픈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브랜드 공동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 운영체의 규모를 이룩했다는 점이다. 올해 연말까지 150개점, 2008

년 말에는 250개점을 개설하고 2009년까지 전국에 300개점 이상을 목표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집수리에 있어 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금융팩토링을 도입했다.

빠른 시일내에 100호점을 오픈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리점과 본사간 신뢰가 구축돼 있었던 것을 입증한 것이다.

△향후 사업계획은
귀뚜라미그룹은 2010년 매출목표를 1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2억달러 수출목표를 수립했다.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7월 터키 이스탄불에 합작공장을 건립해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터키를 비롯해 그리스를 공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EU로의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3년내 5~10만대를 판매목표로 설정했다. 중국의 제2공장 건립을 진행 중으로 기존 공장인 천진공장은 동북3성까지를 아우른다면 제2공장은 상해 이남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물류기지가 10월경 오픈한다. 이는SKD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